

보도 일시	2022. 12. 14.(수) 07:30 12. 14.(수) 석간 가능	배포 일시	2022. 12. 13.(화) 09:00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강혜영 (044-201-2111)
		담당자	서기관 이수현 (044-201-2116)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 농식품부,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발표 -

주요 내용

- 농식품부는 12월 14일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
 - 이번 방안은 푸드테크를 통해 국내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춤
- 농식품부는 '27년까지 푸드테크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 30개 육성과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불 달성을 목표로 ①푸드테크 혁신기업 육성, ②산업 저변 확대, ③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발표

3대 추진전략	주요 과제
①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계별 안정적 자금 지원 ■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 푸드테크 시장 확대
② 푸드테크 산업 '저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수입원료의 국산 대체 지원
③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 강화 ■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 법적 근거 마련 및 각종 기준 정비

-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청년들의 창업기회 확대 및 관련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등 우리 농식품산업이 한 단계 크게 성장하는데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I. 추진배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푸드테크 산업 육성'(「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다.

이러한 푸드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가 되었다.

'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 원, GS&J 추정), 국내는 약 61조 원(GS&J 추정)으로 추정되며, '17~'20년 30%를 훌쩍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국내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억 달러): ('17) 2,110 → ('20) 5,542(연평균 38%↑/식품산업 전체 0.5%),
국내 푸드테크 시장규모(조 원): ('17) 27 → ('20) 61(연평균 31%↑/식품산업 전체 4.8%)

푸드테크는 정보통신, 인공지능, 로봇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되며, 신식품 뿐만 아니라 조리로봇 등 관련 장비 산업까지 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많은 청년 새싹 기업(스타트업)이 푸드테크에 진출해 있으며, 이미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이 탄생했고,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으로도 도약을 앞두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총 25회에 걸친 푸드테크 기업 간담회와 전문가 연구 등을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푸드테크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하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II.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1.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 ◇ 2027년까지 푸드테크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 ◇ 2027년까지 1천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기금(펀드) 조성

우선,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27년까지 1천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푸드테크 기업에게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23.6월까지 '푸드테크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사업계획 수립 자문과 투자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여 엔젤 투자와 대중 투자(클라우드 펀딩)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푸드테크 소재 개발부터 제품 시험까지 가능한 시설·장비 공동이용 플랫폼으로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푸드테크 기업의 초기 시설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넷째, 바이오 벤처캠퍼스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을 통합 지원하고, 푸드테크 전문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제품시연 등의 홍보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식품 원료부터 인력·장비·제도 등 공공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푸드테크 기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2. 푸드테크 산업의 저변 확대

- ◇ 2027년까지 케이(K)-푸드테크 수출규모 20억 불 달성
- ◇ 푸드테크 원료 공급처로서 농업의 역할 확대

다음으로, 미국·유럽연합(EU) 등 푸드테크 시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식품 첨가물·표시기준 등 각종 규제 정보와 인증, 시장 동향 등 기업이 해외 진출 준비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별 시장 선호를 고려한 유망상품 개발 및 통관·검역·상표 부착 등에 대한 자문(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케이(K)-푸드테크 제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을 확대하고, 소비자 체험 행사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 원료의 국산원료 대체도 지원한다.

대두·쌀·버섯 등 주요 대체식품 원료 및 소재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제공하고, 콩 생산단지 확대 및 농가와 푸드테크 기업 간의 원료 계약 채배 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3.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 ◇ 푸드테크 10대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
- ◇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융복합 인재 3천 명 양성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우선, 국내외 기술동향과 전문가 및 기업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세포배양 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식품프린팅 기술, 스마트 제조·유통 기술, 식품 새 활용(업사이클링) 기술, 친환경포장 기술, 푸드테크 로봇 등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중 즉각 사업화 가능한 기술은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로봇·식품프린팅 등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케이(K)-푸드테크 이니셔티브’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의 푸드테크 연구 개발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식품과 인공지능(AI)·로봇기술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융합인재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학에 푸드테크 융합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푸드테크 계약학과도 현 4개교에서 2027년 12개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산업 지원근거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식물성 대체식품 표시 기준(가이드라인) 및 안전관리 규정 마련, 로봇 보도주행 허용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푸드테크 관련 각종 기준과 제도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III.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농식품부는 조기에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산·관·학이 참여하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동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정책금융보험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 푸드테크 기업 다수가 참여하여 국내외 산업 동향과 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논의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번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이행을 통해 청년 창업 기회 확대,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 농식품산업에는 도약의 기회가 마련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



붙임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푸드테크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도모**

- 목표**
- ◆ **[기업육성]**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22) 2 → '27) 30개
 - ◆ **[수출강화]** 푸드테크 수출액: '22) 5 → '27) 20억불
 - ◆ **[기술확보]** '27년까지 10대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

	3대 추진전략	주요 과제
전략 및 과제	1.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단계별 안정적 자금 지원▪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푸드테크 시장 확대
	2. 푸드테크 산업 저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수입원료의 국산 대체 지원
	3.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대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 강화▪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준 정비

- 추진 체계**
- ◆ **산·관·학** 푸드테크 정책 거버넌스 구축
 - ◆ 푸드테크 산업 **통계기반** 구축